

시선

사설

‘포스트 메르스’
경희가 함께 헤쳐가자

메르스 공포 속에 문을 닫았던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이 지난 13일 재개원했다. 최초 확진자 발생 36일 만이 자 병원 전면 폐쇄조치 이후 25일 만의 재개원이다. 당초 강동경희대병원은 6월 6일에 76번 확진자가 발생한 후 하루 뒤인 7일에 응급실을 긴급 폐쇄조치한 데 이어, 6월 18일 165번 확진자가 인공신장실에서 메르스 양성판정을 받게 되자 내부 논의를 거쳐 하루 뒤인 19일에 전격적인 병원 전면 폐쇄조치에 돌입한 바 있다. 이 같은 강동경희대병원의 조치는 의료계 안팎으로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강동경희대병원은 전면 폐쇄 이후에도 부단한 노력을 통해 추가 확진자 발생 없이 사태를 마무리시키며 호평을 받았다. 매 주 건물 전체 소독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확진자가 발생했던 응급실과 인공신장실에는 3중 필터가 장착된 공기멸균 공조시스템을 설치해 실내공기 정화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감염에 취약한 혈액투석환자 집단을 메르스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한 것은 의료계 일각에서 ‘기적과도 같은 일’로 평가될 만큼 커다란 성과였다.

강동경희대병원의 이번 메르스 대응 조치는 커다란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고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이번 메르스 사태로 병원 측이 입은 직, 간접적인 손실에 규모는 300억 원 가량에 이른다는 후문이다. 때문에 ‘이윤창출’이라는 기업논리를 넘어 환자와 지역사회를 최우선가치로 두었던 강동경희대병원의 이번 메르스 대응 과정은, 작게는 교육, 연구, 사회기여라는 대학의 3대 기능을 공유하는 대학병원으로서 ‘사회기여’를 몸소 실천했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크게는 우리 사회에서 ‘의료’란 과연 어떤 의미이며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주지하듯, 의료는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투자이며, 의료대상을 향한 공공적 성격의 서비스다. 그리고 이러한 의료의 가치가 우리 사회와 의료계 전반에 내재화되어 있을수록, 이번 메르스 사태와 같은 전국적 비상상황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다. 이러한 기치 속에 강동경희대병원엔 그 최일선에서 소임을 다한 셈이다.

이제 전국을 강타했던 메르스의 기세는 한 풀 잦아드는 모양새다. 메르스 여파로 큰 상흔을 입은 우리 사회는, 아마도 메르스 종식 이후엔 이번 사태를 서둘러 잊어버리려 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경희대학교 구성원들은 강동경희대병원에서 처한 현재의 상황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경희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메르스 사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강동경희대병원에서 맞닥뜨리게 된 불가피했던 ‘손실’을 온전히 병원 측의 짐으로만 방치하는 것은 온당한 공동체적 태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강동경희대병원의 의료진 및 직원사회가 똘똘 뭉쳐 돌파했다면, 이제는 모든 경희대학교 구성원이 합심하여 ‘메르스’ 이후를 헤쳐 나가야 한다. 격려나 응원의 목소리는 물론이거니와, 현실적인 재정 손실분에 대한 대학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시점이다. 경희대학교는 강동경희대병원의 ‘지역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 한 가족이기 때문이다.

신규우편번호,
서울캠 ‘02447’ 국제캠 ‘17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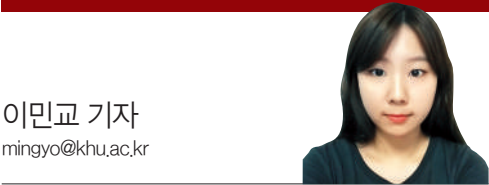
미디어 여론동향 2015. 7. 13 ~ 7. 26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경희대병원이 내원객들의 진료 편의를 위해 오전 진료를 30분 앞당기는 조기 진료에 들어갔다. (“30분 일찍 진료받으세요” 경희대병원 조기 진료 실시/메디컬타임즈, 2015.7.17) 전 진료과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조기 진료로 경희대병원은 9시부터 시작했던 외래 진료를 8시 30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김진식 병원장은 “동대문구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으로 모든 교직원들이 합심해 메르스를 막은 국민 안심병원으로의 자부심이 대단하다”며 “비록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지역주민의 격려와 응원은 안전한 의료환경을 제공하는 병원에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희대병원은 토요일 오전 외래



이주의 주제 - SPACE21 사업 ‘특별기구’ 설치
건물과 함께 ‘신뢰’ 구축하는 계기 되길



하루가 다르게 서울캠퍼스(서울캠) 대운동장 주변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교육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방학부터 시작된 SPACE21 사업 공사가 한창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기자가 입학하기 오래 전부터 ‘이야기’와 ‘그림’으로 논의됐던 이 사업이 실제 모습이 되자, 느끼는 감정은 다양하다. 낯설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그런 복잡한 마음이다. 무엇보다도 공사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다행스런’ 마음이 크다.

그동안 SPACE21 사업을 두고 여러 이야기가 오고갔다. 안전문제와 방음·방진 문제는 대규모 공사에 따른 당연한 이야기였다. 특히 최근에는 ‘공사비용 확보’를 두고 구성원의 우려가 커지기도 했다. 서울캠 SPACE21 공사비용으로 책정된 약 800억 원 중 기채 500억 원 상환계획과 재정사업을 통한 자금 충당계획을 두고 총학생회(총학)는 대학본부 측이 이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는 SPACE21 공사비용 마련 계획을 바라보는 총학과 대학본부의 견해차도 분명 있었지만, 갈등을 더욱 부채질한 것은 결국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부족했던 것이 보다 근본적인 이유였을 것이다. 신뢰라는 것은 단순히 긴 시간동안 이야기했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총학이 제시한 ‘SPACE21 논의를 위한 8가지 제안’에 대해 대학본부와 합의가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 ‘제안’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특별기구’다. 양 측은 대학본부와 학생 측 인사가 참여한 특별기구를 설치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SPACE21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를 통해 기체 상환계획을 비롯한, 안전 문제, 대운동장 사용문제, 강의수와 교육여건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결국 ‘누구로 구성된 특별기구’보다
‘무엇을 하는 특별기구’가 더 중요하다

지금이라도 대학본부와 총학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학교가 수많은 회의체를 갖고도 소통이나 신뢰의 문제가 매번 불거지는 것처럼, 결국 ‘누구로 구성된 특별기구’보다 ‘무엇을 하는 특별기구’가 더 중요하다. 따라서 회의체의 형태를 정한 이번 합의를 넘어 구성원의 편의와 권리를 위한 회의 내용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SPACE21 사업은 우리학교의 숙원사업이다. 이제 SPACE21 사업은 ‘첫 삽’을 뚫은 뿐이다.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앞으로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특별기구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 그래서 이 사업이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구성원 간 신뢰를 건설하는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

진료를 평일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내원객들의 진료 편의를 위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서울캠 제28대 총여학생회(총여) 하늬 이바를(한약학 2013) 부회장이 지난 14일 사퇴했다.(총여학생회 이바를 부회장 사퇴/대학주보 온라인, 2015.7.17) 이 부회장은 대자보를 통해 “1학기동안 가정사정과 개인적인 문제들로 인해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할 상황에서,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가만히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해 사퇴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희 학우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셨던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총여 측은 부회장직을 공식으로 둘 예정이다. 총여 금혜영(아동가족학 2012) 회장은 “회칙상 보궐선거가 의무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부회장을 다시 선출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경희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에는 ‘떠난 동생’(#경희숲_9829, 2015.7.16)에 관한 많은 이의 눈시울을 붉혔다. 이 글에는 311개의 ‘좋아요’와 6개의 댓글이 달렸다. 글쓴이는 “동생, 네가 떠나고 (태양 주위를) 지구가 3바퀴나 돌았다”며 “오늘은 네 생일인데 좋

아하는 케익이 무엇인지 모르는 나를 용서해줘”라고 말했다. 이어서“친구들한테 네 자랑 많이 했는데, 너한테 직접 이야기 한 적 없어 너무너무 서럽다. 다들리게 이야기할 걸...”이라며 “나는 네 언니여서 행복해. 그리고 사랑해 우리 또 만나자. 생일 축하해”라고 전했다. 이에 ‘동생도 글쓴이의 동생이어서 행복했을 것이다’, ‘동생분 생일 축하한다’ 등 응원의 댓글이 달렸다.

서울캠퍼스의 우편번호는 현행 ‘130-701’에서 ‘02447’로, 국제캠퍼스의 우편번호는 현행 ‘446-701’에서 ‘17104’로 변경된다. 광릉캠퍼스 평화복지대학원도 현행 ‘472-864’에서 ‘12001’로 바뀐다.(서울캠 우편번호 ‘02447’, 국제캠 우편번호 ‘17104’/대학주보 온라인, 2015.7.20) 우정사업본부가 현행 6자리 우편번호를 오는 8월 1일부터 5자리 새 우편번호로 변경함에 따른 것이다. 기존의 6자리 우편번호는 1년 동안 통상 우편물의 규격으로 인정돼, 내년 7월 31일까지 새로운 5자리 우편번호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 8월 1일부터 기존의 6자리 우편번호를 기재한 우편물은 ‘규격 외 요금’이 적용돼, 추가요금에 적용되는 만큼 신규 우편번호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학 기숙사비 카드 납부 추진,
그렇다면 등록금은?

세시봉

백승철 <편집장>



교육부가 지난 20일 대학 기숙사비를 현금 분할납부나 카드납부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국사학진흥재단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숙사에 거주하는 대학생의 수는 370,568명이다. 이렇게나 많은 기숙사 거주 학생들이 카드납부를 통해 결재를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된다니 이는 좋은 일이다.

하지만 기숙사비 뿐만 아니라 카드납부 방식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 또 있다. 바로 등록금이다. 지난해 전국 407개 대학 중 148개 학교만이 신용카드를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는 전국에 있는 대학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37%에 불과하다. 등록금 카드납부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생들에게 해당되는 일이다. 더욱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라는 뜻이다.

대학은 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하게 되면 카드 가맹점 수수료만큼 손해가 발생하고, 결국 그 액수만큼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카드납부를 꺼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등록금 납부 시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발의돼 아직도 계류 중인 ‘대학구조개혁법안’처럼 언제 통과가 될 지는 아무도 모른다.

교육부가 이번 ‘대학생 기숙사비 납부방식 개선안’을 추진한 이유를 살펴보자.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부에서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기숙사비 보다 더욱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등록금 문제이에 대해서 못 본 채 한다면 이는 ‘뽕수’에 지나지 않는다.

올해 기준 전국 4년제 대학의 학생 1인당 연 평균 등록금은 667만 원이다. 지난해 사립대학 기준 한 학기당 기숙사비 1인 평균 납부액은 약 116만 원이다. 연 평균 232만 원으로 등록금에 3분의 1 수준이다. 신용회복위 자료를 살펴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신용회복위에서 채무 조정에 들어간 20대가 약 4만 2300명이었고 대부분이 대학생이었다. 채 사회에 나가기도 전에 ‘빚쟁이’로 불리는 풍경은, 가장 절박한 사안이 정부의 등록금 관련 정책이라는 아주 많은 지표 중 하나일 뿐이다.

‘대학생 기숙사비 납부방식 개선안’이 생생내기가 아닌 정말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면 기숙사비 뿐만 아니라 등록금 납부에도 카드 납부를 추진하는 것이 옳다. 기숙사비는 카드납부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추진하면서 등록금 카드납부 문제에 대해서 못 본채 한다면, 학생들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육비 부담 경감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이 역시 보완책 수준이다.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조치는 정부의 지원을 통한 등록금 인하일테니까.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h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민정 | 편집장 백승철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정경 02-441-7317(미레기화)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사천동)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